

# Wendy L. Widder 박사, Daniel, 세션 13, 다니엘 9장, 회개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 2024 웬디 위더(Wendy Widder)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다니엘서에 대해 가르치는 Dr. Wendy Widder입니다. 13과 다니엘 9장 회개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번 강의는 다니엘 9장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다니엘 9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장의 길이는 27절에 불과하지만 구약성서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네 구절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음 강의에서 제쳐두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는 이 장의 가장 큰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장은 회개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9장이 바로 그것이다. 이 장은 다니엘의 환상이 포함된 다른 장들과 다르다. 따라서 다니엘의 환상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왕국의 상징적 표현을 봅니다.

7장과 8장에는 상징적인 환상이 나옵니다. 9장에서는 실제로 환상이 아니라 깨달음에 가깝습니다. 그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 마찬가지로이지만 9장에서 실제 계시, 즉 흔히 환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4~5절에 불과합니다.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계시에 대한 20절의 큰 도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장에 기록된 대부분의 글은 마지막 네 구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장의 가장 큰 부분이 논의되지만 그것은 일종의 도입부로서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끄는 70주에 도달하기 위해 다소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나는 본문의 내용을 정의하고 가장 긴 부분에 상당한 시간을 주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다니엘의 네 가지 환상 경험 중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받는 깨달음이나 단순한 구두 계시에 가깝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의 맥락에서 이 환상은 초점을 계속 좁힙니다. 그래서 7장에서 우리는 성소의 황폐함, 곧 안티오코스 4세 치하에서 일어날 파괴와 억압에 대한 약간의 소개와 함께 우주적 초점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약간의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8장에서 우리는 예루살렘과 성전,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날 파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9장에서 우리는 성전이 파괴되는 일에 더욱 집중할 것입니다. 10장부터 12장에 이르면 우리는 성전이 파괴되거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환상이 실제로 하는 일은 역사적 배경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세계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따라서 다니엘의 환상은 우리에게 유대 역사의 한 시기, 즉 이스라엘 역사의 정말 끔찍했던 시기, 즉 안티오코스 4세 치하의 기원전 2세기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묘사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백성을 억압하는 통치자, 악한 통치자의 성경적 패턴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정점에 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9장은 꽤 훌륭하고 균등하게, 균등하지는 않지만 꽤 명확하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쓰지 않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에서 우리는 문맥을 얻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나머지 장에서 일어날 일의 시간과 장소를 정합니다.

4절부터 19절까지는 다니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의 죄를 고백하는 긴 고백인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간구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그들의 간구를 들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장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7절까지에서 우리는 이 계시를 봅니다.

먼저 공개를 담당하는 캐릭터인 가브리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브리엘은 22절에서 시작하여 27절까지 계시를 줍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이 회개의 맥락을 살펴보고 회개 자체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강의를 위해 계시를 남겨두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아밋 족속으로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에서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나기 70년 전에 반드시 지나야 하리라.

그 후에 나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주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기도와 간구로 그분을 찾았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여호와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인애를 베푸시나이다. 내 생각엔 내가 거기까지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멀리 갔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에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 두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니엘의 환상이나 깨달음에 대한 시공간적 언급을 얻습니다. 우리가 벨사살 통치 기간에 설정한 이전 두 가지 환상. 이제 우리는 다리우스 원년에 이르렀습니다.

글쎄, 우리는 전에 다리우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왕국이 다리오에게 넘어가는 5장 끝부분에 처음 등장합니다. 6장에서 다니엘이 사자 굴에 들어갈 때에는 다리오가 왕이 되고, 그 후 이 장까지 사라집니다.

따라서 연대순으로 볼 때, 우리는 책의 연대순의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다리우스의 첫해에 이제 우리는 다리우스에 대한 세부

정보를 얻습니다. 우리는 그가 아하수에로의 아들이라고 들었고, 어떤 버전에서는 크세르크세스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메디아 출신이요, 갈대아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은 정보를 얻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벨사살 왕 제3년이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얻는 전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계보적 정보를 얻습니다. 해설자는 왜 우리에게 다리우스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메디아의 다리우스처럼 약간은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몇 챕터 동안 이 사람을 보지 못했지만, 그 사람은 우리가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왜 다리우스 왕이나 메대 왕 다리우스만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 모든 다른 정보가 있습니까? 몇 가지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리우스를 아하수에로 또는 크세르크세스와 연결하는 것은 그의 페르시아 역사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페르시아 왕조에서 흔한 이름이 되었고, 다리우스는 페르시아와 연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내 생각에 다리우스가 키루스라면 그는 메디아와 페르시아 출신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메디아 사람이고 그의 아버지는 페르시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이 왕이 페르시아 왕족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가 메디아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가 메디아인이자 페르시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의 어머니는 왕족이었으므로 그의 왕족은 계속됩니다.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수동적입니다. 왜 안 돼? 그는 왕이었습니다. 역사상 이 모든 사건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이 다니엘서에서 반복되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활동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리오가 왕이 되는 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왜 그가 바벨론의 왕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가 왕이 되었다고 말하세요. 왜 칼데아 왕국을 다스리는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확실하지는 않지만 추가 정보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왕국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다니엘서의 일부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다리우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칼데아 왕국은 사라졌다. 이제 우리는 다음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왕과 왕국의 흥망성쇠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 속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독자들에게 그가 메디아 사람이고 페르시아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습니까? 다시 한 번 기억하십시오.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따르면 바벨론은 메디아 왕과 바사 왕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저자는 그 예언의 성취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통치 첫해에 여기서는 실제로 두 번이나 언급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리우스 통치 첫 해에 우리는 이 족보를 얻었고, 다시 그의 통치 첫 해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계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잊어버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의 통치 첫해에는 그 시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리우스가 키루스라면 그의 첫 해에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기원전 539년에 있습니다. 그럼, 기원전 539년이 왜 중요합니까? 바벨론이 무너진다.

미디어, 페르시아가 정상에 오른다. 결국, 고레스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이 유대인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539년은 강제 유배기간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날이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시간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강제 유배는 끝났거나 거의 끝났습니다. 이는 다니엘의 회복, 곧 영광스러운 회복이 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게 그의 시간이야.

이제 그의 위치를 살펴보자. 그는 우리에게 지리적 위치를 알려주지 않지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는 어디에 있나요? 그는 두루마리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두루마리 외에 어떤 모양이었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레미야서의 분량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의 황폐가 끝나기 전에 지나야 할 연수를 예레미야서에서 구체적으로 읽거나 이해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예레미야서에는 다니엘이 70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히 나오는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레미야서에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후에 끝날 것이라는 내용을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예언을 전하는 예레미야 25장에서 다니엘이 읽을 수 있었던 두 곳.

이것은 유배되기 전입니다. 그는 느부갓네살을 통해 유다가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사용하여 그들의 땅을 멸망시키고 벌하시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아가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징벌하실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이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포로 생활을 하는 선지자이지만 포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갔다가 이집트에 있었지만 바벨론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는 그곳 지역사회에 편지를 보내 그들이 정착하여 집을 짓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70년 동안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제 시간에 어디에 있나요? 기원전 539년, 다리우스 원년, 복원 직전. 그 사람은 어디에 있나요? 그는 파멸과 황폐가 7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글썄요, 다니엘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시간을 알아낼 수 있지, 그렇지? 그는 지금이 몇 시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메디아 페르시아 왕에게 형벌을 받았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글썄, 사람들은 또한 회개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기도하고 그 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마음을 알았을 것이며,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불충실하여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이 포로 생활 중에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9장에 이어지는 내용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회복이 필요하지만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고, 고백하고, 얼굴을 주님께로 향하여 기도로 그분을 찾습니다. 그는 베옷을 입고 재를 입는다. 그는 진지하게 고백을 하고 있다.

그는 고백하라는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응답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섹션의 끝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절의 실제 기도로 시작하여 19절까지 이어집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여호와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인애를 베푸시나이다.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반역하고,

주의 계명과 규례를 버렸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 예언자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고관들과 조상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말한 것을 듣지 않았습시다.

여호와여 의는 주께 속하고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있사오니 오늘과 같이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온 이스라엘 곧 원근에 있는 모든 지방에서 너희가 쫓겨난 자들이 너희에게 반역을 행하였으므로 너희가 그들을 쫓아낸 것과 같으니라 . 오 주님, 우리에게는 공개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우리 왕들과 고관들과 조상들에게 감사하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긍휼과 용서가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배반하여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돌이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저주와 맹세가 우리에게 부어졌으니 이는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느니라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과 같은 일은 없었느니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죄악에서 돌이켜 주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재앙을 예비하여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시므로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름을 얻으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우리가 범죄하여 악을 행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모든 의로운 일을 좇아 주의 진노와 분을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의 말거리가 되었음이니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며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자비를 구하는 그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와여,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당신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요 오직 주의 크신 긍휼 때문이니이다.

오 주님, 들으소서. 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 주님, 주의를 기울이고 행동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며 주를 위하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이 됨이니이다." 이것은 참

으로 고백적인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는 많은 반복이 있고, 널리 퍼져 있는 많은 주제가 있습니다. 제게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은 다니엘이 모든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 있고, 그런 다음 그가 요청하는 간구가 있다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14절까지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 간구, 곧 그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15번과 16번에는 이 둘 사이에 제가 다리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방금 고백한 내용을 검토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이 두 가지를 연결합니다. 그는 고백하고, 간청하고, 진심으로 간청하는데, 그 주제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핵심 구성 요소는 모두 듣기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 번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계속해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양한 뉘앙스를 포착하기 위해 약간 다르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쉘마(Shema)는 듣다, 듣다라는 뜻이며, 더 나아가 순종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쉘마를 듣거나 듣는다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의 고백에서 다니엘은 우리가 듣지 않았다고 반복해서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간구할 때, 그는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간절히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말을 들어주세요.

우리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말을 들어주기를 절실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이 기도 전체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듣다. 들어주세요. 먼저 고백합니다(4절부터 14절).

그리고 고백을 요약하자면, 우리는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듣지 않았다는 주제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누가 듣지 않았는지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듣지 않았는지 말해 보겠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기 전에 이 기도가 실제로 구약성서에 나오는 몇 가지 다른 기도와 유사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청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9장에 나오는 이 기도는 느헤미야 9장, 그리고 에스라 9장에 있는 기도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두 9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 다 유배 이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망명 생활에서 곧 돌아올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훌륭한 고백 기도입니다. 고백, 회개.

일부 학자들은 이를 참회의 기도로 분류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특성을 공유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9장을 읽은 후에 다른 두 장을 읽으면 같은 내용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약이 확립되고 백성이 순종하고, 듣고, 듣고, 듣도록 부름을 받은 신명기의 언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듣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기도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간의 참고 사항입니다. 알았어, 그럼 고백이야. 우리는 듣지 않았습시다.

그는 자신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영어로 awesome이라는 단어가 정말 희석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침 식사가 좋았다면, 아침 식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awesome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일몰을 묘사할 때 awesome을 사용합니다. 아침 식사와 일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wesome은 산을 묘사하지만 점심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정말 굉장합니다.

희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예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Awesome'은 두렵고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우리는 경외심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약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놀라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Goldingay가 이 시작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장엄한 측면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용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장엄한 면은 외국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계속해서 인정할 것은 바로 그러한 실패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고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기도하고 있으며, 자기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을 베푸시나니 그 자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라. 그들은 그분을 사랑하고 동일하고 동일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언약을 지키시나 우리는 그런 백성이 아니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이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고, 악하게 행동하고, 반역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네 개의 짧은 단어가 한꺼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네 개의 짧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으며, 악을 행했고, 반역했습니다.

이 모든 단어를 분석하고 이들이 어떻게 약간 다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잘못하고, 사악하게 행하고, 반역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죄의 작은 부분을 다룰 수도 있지만, 여기서 집합적인 효과는 우리가 가능한 모든 것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모든 잘못은 우리가 해냈습니다. 포괄적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반항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과 규례를 떠났사오며 그렇다면 그는 어디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언약을 지키는 자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기도하느니라. 그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이 하나님께 그의 말을 들어달라고 간청할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그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진행하면서 나올 것입니다. 그런 다음 6-10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백성의 타락 사이의 확장된 대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두 펼쳐보면 그가 하는 진술들 사이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가 듣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합니다. 7절의 첫 부분에서 그는 “여호와여 의는 주께 있사오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의 다른 부분에서 그는 우리에게 공개적인 부끄러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8절에서 그 말을 반복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공개적인 수치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오 와우. 그런 다음 그는 10절에서 우리가 듣지 않았다고 다시 말함으로써 이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다 펼쳐보면 여기서 몇 가지 공통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듣지 않았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는 섹션을 마쳤지만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니다. 당신에게는 의로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긍휼과 용서를 베푸십니다. 이것들은 일종의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우리에게 공공연한 수치심이 있다고 두 번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공공연한 수치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한다면 여기서 작은 교차점을 볼 수도 있습니다. A, 여기에 대위법이 있습니다.

B, 여기에 대위법이 있습니다. C. 그리고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공개적인 수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수치심입니다. 이 기도 전체에는 '듣다'라는 단어가 일곱 번 나옵니다. 쉘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이미 설명한 대로 말장난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듣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나요? 우리는 당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당신의 종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주여, 의가 주께 속하였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수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공공연한 수치심이 있습니다. 얼굴의 수치심은 때때로 렌더링되는 방식입니다. 즉, 대중의 부끄러움을 의미합니다.

이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모두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백성 중 모든 사람이 이런 공공연한 수치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것들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유다 사람들, 유다 주민,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든 사람이 원근에 포로로 잡혀 살고 있는데 우리가 범 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흘으셨느니라. 상관없어요.

우리는 모두 유죄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나 그들의 죄의 수치를 겪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8절에서 사람들의 부끄러움에 대해 두 번째 진술을 합니다. 공개적인 부끄러움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왕에 초점을 맞췄다. 우리의 왕들, 우리의 방백들, 우리의 조상들에게. 평민부터 왕까지 모두.

부끄러움은 누구나 감수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야훼의 본성, 즉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진술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서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우리가 그에게 반역하였어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니라. 그래서 여기 다니엘은 그가 향하는 곳에 대한 약간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근거는 야훼가 이스라엘과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와 함께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러한 연민과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용서와 회복을 위한 다니엘의 궁극적인 호소는 야훼의 성품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해 좋은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듣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 부분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사람이 딱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는 우리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가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음성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야훼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당신에게 순종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섹션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저주가 성취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저주를 이루셨습니다. 또, 기도가 함께 하도록 돕는 언어에서 반복을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것은 내 머리 속에 함께 머무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기 11절부터 13절까지에서 그는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가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저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옆으로 돌아섰고 아마도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11절에 있습니다. 11절의 첫 부분입니다.

또한 11절에는 저주에 관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모세의 토라에 기록된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그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를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12절입니다.

13절에서 그는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재앙이 우리에게 이르렀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13절에서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그들은 외면하지도 않았고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언어가 이 기도문을 하나로 묶는 방식에서 몇 가지 유사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듣지도,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였느니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재앙이 우리에게 이르렀느니라. 중앙에는 무엇이 있나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이루셨느니라

이것이 그가 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어겼고, 여호와께서는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다니엘은 그들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저주가 성취되었으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었습니다. 야훼께서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이 부분의 핵심에서 흥미로운 점은 그분이 우리와 우리 통치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과 평민이 있습니다. 둘 다 유죄이고 모두가 유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시려고 그의 말씀을 이루셨으니 이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과 같은 일이 온 천하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OTL(구약성서도서관 주석)을 갖고 있는 Carol Newsome이 2014년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구약에서 지금까지 끔찍한 죄로 인한 완전한 멸망의 가장 좋은 예는 소돔과 고모라였다고 지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소돔의 죄는 마땅합니다. 그들이 너무나 죄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멸망시키셨는지 보십시오. 여기에서 다니엘은 그의 백성이 받을 형벌이 온 하늘에 독특하다고 묘사합니다.

이는 마치 그가 예루살렘의 이러한 운명이 죄 많은 도시의 파괴에 대한 기준으로서 소돔과 고모라를 대체할 것이라고 제안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아주 분명한 진술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기꺼이 그것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이 얼마나 죄 많은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재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닥쳤으나 우리는 아직도 돌이키지 아니하며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13절에서 나는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이 고백을 잠시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돌아서지 않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11절에서 시작한 방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단,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행한 일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범죄하고, 돌이켜서,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는 그들이 하지 않은 일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달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죄악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의 진리에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신학적 용어로 우리는 이러한 부작위죄와 범행죄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것과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의 죄는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끄러움을 겪으며, 그들의 죄의 범위는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그는 이 고백, 즉 첫 번째 전체 부분인 4-14절을 야훼께서 재앙을 지켜보시며

백성에게 내리셨다고 말하며 끝을 맺습니다. 왜? 그분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기본적으로 그가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15절과 16절에 도달합니다. 이 구절은 고백과 실제 간구 사이에 있는 짧은 연결 고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약간의 리뷰와 미리보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 불리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 특히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강조합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구속사건은 출애굽이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에 호소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근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시내산에 이르러 이르시되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 그분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여기서 당신이 전에 당신의 백성을 대신하여 행동하셨다는 것을 야훼께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것을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5절에서 더 간략하고 간략한 고백을 합니다. 오 주님, 당신의 모든 의를 따라 저를 물러가게 하소서.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의 대부분에서 그들이 죄를 지은 네 가지 다른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단지 그것을 통합할 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미리 보여줍니다. 그는 여호와께 그의 진노와 진노를 예루살렘에서 그치게 해달라고 간구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옳은 일을 행하신다는 평판을 얻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옳은 일을 행하신다는 평판을 얻으셨습니다. 그의 의로운 행동이 다니엘의 근거가 됩니다.

그의 의로운 행위와 그의 성품. 그의 명예가 위태로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명예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부끄러움뿐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묶어두셨기 때문에 그분의 명예가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리를 건너 이동했습니다.

이제 간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는 꽤 짧은 섹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쉼마(Shema)라는 단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듣지 않았다고 말하는 대신 그의 간구는 '들어주세요'입니다. 그는 단어를 연주합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세 개의 짧은 섹션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이 단어를 듣고자 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17절).

주님을 위해 당신의 황폐한 성소에 당신의 얼굴을 비추십시오. 다니엘은 자신을 위해 자신의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 달라고 여호와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18절에서 듣고 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귀를 기울이고 눈을 뜨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이 구약성서의 공통 언어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들으십시오. 눈을 뜨고 보십시오.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돌이키신 것 같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관심을 주세요.

황폐된 도시와 도시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어느 것? 당신의 이름이 그 위에 불러졌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성과 그의 성전입니다.

그의 마지막 간청은 19절에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일련의 스타카토 요청입니다.

주님, 들어보세요. 주님, 용서해주세요. 주님, 주의를 기울이고 행동하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초반 스타카토의 갑작스러운 고백과도 잘 어울린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는 반항했습니다. 주님, 들어보세요.

행동해주세요. 들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도시와 당신의 백성 위에 일컬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명성에 달려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백성이 행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라고 간청합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은 이 기도의 마지막 흥미로운 점은 다니엘이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이 고백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내 말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은 아름다운 모범적인 유대인, 이스라엘인의 모범입니다.

그는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어떤 종류의 예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이 모든 끔찍한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선지자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의 백성과 함께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중보하시며 그들의 죄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들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내 커뮤니티입니다.

이곳이 내가 속한 곳이다. 이들은 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죄를 회복해주시기를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자, 여기 다니엘이 회복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레미야서에서 70년을 읽습니다.

70년이 흘렀습니다. 바벨론은 형벌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듣지 못하더라도 들어 주십시오.

당신의 성전을 회복하고, 당신의 성소를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가브리엘은 그 기도에 응답하거나 응답을 가져올 것입니다.

회복의 약속.

다니엘서에 대해 가르치는 Dr. Wendy Widder입니다. 13과 다니엘 9장 회개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